

연구보고서 유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low of Research Reports

이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동열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Lee, Jung Yeoun :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wha Womans Univ.

Jeong, Dong Youl : Prof.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wha Womans Univ.

본 연구는 국내 연구보고서 유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와 국내 연구보고서의 유통현황 분석을 토대로 새로
운 연구보고서 유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표준을 근거로 국가통제 연구보고서 번호체제안을 제시하
였고, 유통기구와 조정기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보고서 유통구조
를 제안하였다.

1 서론

연구보고서는 연구개발의 결과와 진행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연구수행과정 전반에 걸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연구관리자 및 지원기관은 연구정책 수립과 연구과제 선정시 연구보고서를 필수적인 정보로 사용한다. 또한 정보이용자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연구방향의 설정과 연구수행시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의 결과물인 연구보고서는 국가적인 자원으로서 그 관리나 보급시스템의 효율성에 따라 정보의 사회기여도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투자

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보고서의 주 생산기관이다. 최근들어 매년 약 10,000종 이상의 보고서가 발행되고 있으며 그 증가율도 연 13% 이상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색과 진행중인 연구에 대한 검색 및 연구기관과 연구자에 대한 정보의 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일반 이용자는 정보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며, 중복연구를 방지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보고서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유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정부 지원 연구결과물인 연구보고서로서 각 부처별 연구과제 사업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연

구의 결과물인 연구보고서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연구과제사업들의 현황은 면담조사를 하였다. 또한 정부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국내연구보고서의 현황

국내 연구보고서의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연구보고서 생산기관은 연구보고서 소장장서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각 기관들간의 조정을 거치지 않아 데이터베이스의 중복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기관 연구보고서 정보는 상호간에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연구지원기관에서도 독자적으로 연구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으나 이를 연구지원 정보제공의 목적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기관은 제한되어 있다.

둘째, 중복연구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과 검색시스템이 없다.

셋째, 생산된 보고서를 배포하는 기준이 연구지원기관별로 서로 다르며, 배포대상기관도 몇 기관에 제한되어 있다. 또한 연구보고서의 수집,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한 기관에 일괄적으로 납본해야 하는 규정도 없다.

넷째, 연구보고서에 관하여 총체적인 서지정보검색을 위한 종합서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보고서번호가 연구보고서 생산기관별로 상이하게 부여되고 있으며, 지원기관의 과제관리번호, 수집기관의 수집번호 등 보고서에 대한 여러 번호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은 연구보고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보고서번호를 접근점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다섯째, 연구보고서를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이 연구소내 이용자의 이용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연구보고서 공개의 범위는 기초연구 결과물인 경우에는 비교적 공개되고 있으나 상품의 개발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3 연구보고서 유통 활성화 방안

3.1 연구보고서 유통 활성화의 방향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로는 연구지원과제의 현황검색 및 연구보고서 서지정보에 대한 종합검색이 가장 시급하다.

우선, 각 기관별로 소장하고 있는 연구보고서에 대한 서지데이터베이스를 통합시켜 각 정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보고서의 서지만을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제작된 서지의 데이터베이스가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레코드구조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체 서지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조정기관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출연기관은 각자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의 서지목록을 단행본과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다시 단행본과 연구보고서를 분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는 이 방법은 실효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보고서의 정보를 최대한으로 널리 배포시켜 기존의 정보실에서 모든 연구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게 확산시키는 방법이 있다. 1989년 과학기술처가 발표한 연구결과 활용 및 연구보고서 관리지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연구보고서에 대한 정보가치를 인식하고 전국적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리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정보 이용자들이 보고서의 원문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활용도나 보고서 발간 배포비용, 배포대상기관 정보실의 관리 및 예산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고려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연구보고서 유통방안은 단순히 연구보고서를 배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정부의 조정을 통한 새로운 하나의 유통기구를 설립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을 통하여 기존에 분산화 되어 구축되어 있는 연구보고서에 대한 서지정보 및 원문을 소급하여 구축할 수 있다. 비록 예산문제와 인력등의 문제가 난점으로 표명될 수 있지만 국가적 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란 측면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이 방법은 앞으로 계속 증가되어 생산될 보고서의 유통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어느 기관이 중앙 유통기구를 담당하는가 하는 문제는 기관별 평가 후에 조정될 것이라고 보지만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제시한 것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보고서 정보에만 한정된 것이다. 그러나 연구보고서 유통기구는 과학기술분야 뿐 아니라 전 분야의 주제를 포괄해야 한다.

연구보고서 공개의 범위도 상당히 제한되어 기초연구결과인 경우에만 공개되는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고서 기밀등급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활동과 관련된 진행중인 연구에 대한 정보, 연구기관에 관한 정보, 연구자에 관한 정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모델은 국가기관이 중앙유통기구가 되어 연구정보의 수집과 가공 및 서비스를 관장하는 구소련의 VNTICentre기관과, 미국의 NTIS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3.2 연구보고서 유통 활성화 요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통기구가 배포서비스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유통과정에 효율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3.2.1 제도화

첫째, 연구보고서 생산기관에서 발행된 보고서가 유통기구로 납본되어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기관별 고유 보고서번호를 생산되는 시점에서 연구보고서에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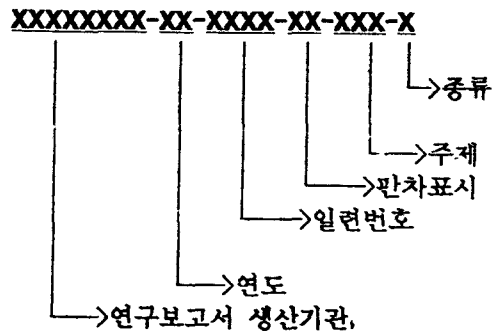
셋째, 진행중인 연구정보를 유통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3.2.2 표준화

첫째, 연구보고서 정보처리에 관한 서지통제양식에 대한 표준화와 연구과제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의 표준을 제정한다.

둘째, 통제된 보고서번호를 제정해야 한다. 국가통제 보고서번호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고서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각각의 보고서를 식별하도록 한다. 보고서의 발행시 이 고유번호를 분명하게 표시함으로써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단계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효율화 할 수 있다. 보고서번호에 서지정보를 결합시켜 정보검색 및 서비스 차원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 번호는 기존에 연구보고서 생산기관에서 각 기관별로 부여했던 번호를 통일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향후 이 번호가 현재 연구보고서 생산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대체하여 국가통제 보고서번호를 일괄적으로 부여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ANSI/NISO, ISO, BS 에서 제시한 표준화안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국가통제 보고서번호안을 제시하였다(표1 참조).

표 1. 국가통제 보고서번호안



3.2.3 유통기구

첫째, 납본된 연구보고서에 대한 종합서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한 연구보고서는 주로 특정한 주제의 연구의 결과물 이므로 각 주제별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중복연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진행중인 연구에 대한 검색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연구과제명과 연구기간, 연구자명, 연구책임기관 및 부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향후 연구계획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연구를 위탁하는 기관이나 연구를 수

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원문복사서비스와 영구보존의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보고서를 광파일, CD-ROM 등 새로운 매체로 저장하여 전문(full-text)을 활용할 수 있고 국가적인 자원으로 영구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3 연구보고서 유통 구조

효율적인 연구보고서의 유통을 위해서 조정 기구와 유통기구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유통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그림1 참조). 각 연구수행 기관은 조정기구에서 제정된 제도와 표준화를 통해 연구보고서의 생산 및 납본과정에 이를 반영시키고 생산된 연구보고서는 유통기구로 보낸다. 유통기구에서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전산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서지검색과 원문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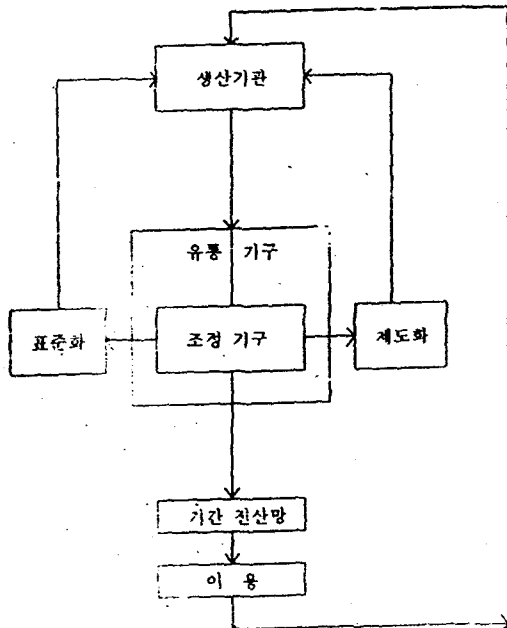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보고서의 유통 구조

4. 결론

이와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앙 유통기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보고서 유통구조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연구보고서에 관한 신속한 서지사항 검색 뿐 아니라 중복연구를 지양하고 연구관련 정보 전반에 걸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이 방안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각종 제도, 표준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모색해야 하며, 확대된 연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연구보고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정, 수집하여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김태승 (1984). 기술보고서에 관한 연구. 『도서관』, 39, 47-55.
- 남영호 외 (1994). 『2000년대를 향한 국가 과학기술 정보 유통시스템 구상』. 서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연구개발정보센터 (1994). 『국가연구정보 관리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 과학기술처, 미간행.
- Auger, C. P. (1975). *Use of Reports Literature*. London: Butterworths.
- Gold, D. (1993). Improving the Impact of Federal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A Call for Action.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10, 221-234.
- McClure, C. R. (1990). *The Future of the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Issue and Options*. Prepared for 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 Pinelli, T. E. and R. O. Barclay (1993). The U.S. Government Technical report and the transfer of Federally funded Aerospace R&D. *Government Publications Review*, 20, 393-411.
- Wood, F. B. (1990).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Perspectives on Current U.S. Federal Information Issues. *Government Publications Review*, 17, 281-300.